

A Study on Special Traits of Fashion Illustration in the Vogue of the 1920's

Kang, Eun-Sook

Gwangju University

Since 1923, the 30th anniversary of the Vogue, its American, English and French editions began to evolve together while maintaining each country's unique independence from the others. The Vogue's English edition realistically portrayed satires with the society's perspectives of those days whereas the French edition focused its interests on rather sumptuous sides exclusively such as high-class fashion and manners. On the other hand, the Vogue's American edition, established in 1987, intended to appeal social aspects along with the new trends to the general public at the same time. As a result of the Vogue's constant effort to pursue and adapt to changes in those three countries, the magazine's external form and editorial planning of the old days, long before the World War I, have transformed to the current image. The Vogue was issued semimonthly in England and America; many contents, especially the fashion part, were overlapped from one another though they did not support each other. Positioning itself as a firm leader in the domain of fashion and culture, the Vogue created a new field in visual arts, now known as fashion illustration, to present clothes that began to enable artists to draw paintings in the definite style and view the magazine required. Publishing fashion illustration in its editorial sections has been the trend and tradition for the Vogue from the early 1920's with many active artists regardless of their talents up to now. The boundary in the world of arts was yet to be defined so that those young artists in Gazette were deeply involved in the ever rapidly transforming art world. A long tradi-

tion from Matisse, to Modigliani to Bourdelle heavily influenced Paris' visual design and fashion illustration; for example, exotic mood of Russian corps de ballet became the root of many fashion designers in Paris, especially of Paul Poire. On the other hand, it took such a long time to reveal the possibility of cubism, constructivism, Bauhaus, and De Stijl's visual and decorative aspects. Such possibility unveiled its images and features in the late 1920's through bobbed hair and single cut, straight and tight skirts, and other areas in use of applied designs. It took quite a while for the expressionists to reveal their traits for they shared many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art nouveau and art deco. Van Dongen's or Matisse's fauvist vulgarity and immediacy finally began to appear in the Vogue in the late 1920's and 1930's; especially, Benito led the art world to the turning point of modern arts when he presented a one-piece dress with long sleeves with geometrical patterns in red, gray and black, specially designed for Madame Agnes, in the Vogue in 1925.

1920년대 보그지에 나타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특징 연구

강은숙

광주대학교

보그지 발행 30주년을 맞는 1923년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판 보그지는 각자 독자성을 유지 하면서 변화한다. 영국 판 보그지는 그 시대의 사회적 충고가 어우러진 풍자적인 것들을 사실 그대로 그렸으며, 프랑스 판 보그지는 고급 패션과 상류사회의 풍속 등 주로 화려한 것에 관심을 가졌으며, 1987년 설립된 미국 판 보그지의 기획 의도는 그 시대의 사회상과 새로운 경향들을 대중에게 동시에 어필함으로서 끈임 없는 변화를 추구한 결과 제 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기 훨씬 전 보그지의 외형과 편집 의도는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모되었다. 영국과 미국의 보그지는 한달에 2번씩 간행되었는데 그들이 정확히 보조를 맞추고 있지 않을 지라도 많은 부분이 비슷하였고 패션에 관하여는 더더욱 그러 하였다. 사회면에서의 차이나 광고를 제외 하고 영국 판이나 미국 판은 거의 같았다. 1920년대 초반의 영국 판 보그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지성인을 위한 잡지였다. 독일 점령을 제외하고 60년 동안 꾸준히 성장 해온 프랑스 판은 파리가 패션계의 중심이라는 인식을 굳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은 초기의 적자를 당연히 권위와 독특한 스타일을 위해 치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으며 뉴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보그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패션과 문화라는 영역에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보그지는 의상을 소개하기 위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시각 예술의 한 분야를 탄생 시키게 되며 미술가들로 하여금 그 잡지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스타일과 시각으로 그림을 그리게 했다. 보그지의 사설란에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을 실기 시작 한 것은 재능의 유무를 떠나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활동 하던 192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보그지는 처음에는 활발한 활동을 벌이다가 이후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 60년

대 초반에는 편집진의 지속적 지원이 철회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산발적이고 즉흥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아르 누보 및 아르 데코의 유행을 보그지가 주도 했으며 C. Nast가 경영을 맡은 처음 20년 동안의 잡지의 표지는 호화로운 장식 본위의 대중적인 것 이었다. 1932년 여름 까지 사진은 전혀 사용치 않고 연필이나 붓으로 그린 표지만을 이용 한 것을 볼 때 일반적으로 보그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황금기는 좀더 앞 서 시작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Gazette 그룹에 속한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들은 대부분 제 1차 세계 대전 직전에 Ecole des Beaux-Arts를 졸업한 젊은이 들이었다. 예술 세계의 경계는 정 해져 있지 않고 야심에 찬 Gazette 그룹의 젊은이들이 변화되고 있는 예술계에 깊이 연루 되어 있었다. Matisse, Modigliani, Bourdelle까지 이어지는 긴 흐름은 현대 파리의 시각 디자인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영향을 미쳤으며 러시아 발레단의 이국적인 분위기는 파리의 패션 디자이너, 특히 Paul Poire 디자인의 뿌리가 되었다. 반면에 입체파, 구성주의, 바우하우스, 데 스틸의 시각적, 장식적 가능성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1920년대 후반 유행하던 단발머리와 싱글 커트, 직선, 몸에 꼭 끼는 스커트와 그리고 응용 디자인을 이용하는 분야들을 통해 그 모습이 드러났다. 표현주의는 아르 누보와 아르 데코와 비슷한 특징을 공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의 자질을 드러내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Van Dongen이나 Matisse의 야수파적 단순성과 직접성이 1920년대 말 1930년대 보그지에 나타나기 시작 했으며 1925년 Benito가 프랑스 보그지에 발표한 기하학적인 무늬로 구성된 Agnes 부인을 위한 빨강, 회색, 검정색 gauze천의 긴 소매를 가진 원피스는 현대 예술의 반환점을 보여 준다.